

광양제철고 초대 챔피언 등극

광양제철고(교장 송기재) 축구부가 올 시즌 고등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09 대교농놀이 전국 고등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풍생고를 연장 혈투 끝에 3-2로 꺾으며 원년 챔피언에 올랐다.

광철고는 28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풍생고와의 경기에서 K-리그 클럽 산하 최고급의 유스팀다운 접전을 이어나갔다.

전반 33분 풍생고의 선취점으로 전반을 0-1로 마감한 광철고는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를 주도하며, 풍생고를 거세게 몰아쳤다.

후반 9분 김영욱(3년·MF)이 얻어낸 페널티 킥을 지동원(3년·FW)이 침착하게 골대에 차 넣으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지동원은 동점골을 넣은지 2분 만에 중앙에서 올려준 공을 2선에서 침투해 골로 연결하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풍생고의 반격도 만만치않았다. 풍생고는 후반 5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다.

기나긴 승부는 2009 국제 청소년연맹(FIFA) 17세 이하(U-17)월드컵에서 활약한 '광양 루니' 이종호(2년·FW)의 발끝에서 마무리 됐다.

이종호는 연장 전반 11분 지동원이 중앙에서 찔러준 공을 받아 골키퍼를 살짝 제치며 골로 연결시켜 120분의 길고 긴 일일전투 공방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철고는 16강에서 울산 화성고를 4-3, 8강전에서 경남 창원공고를 4-1, 4강전에서 서울 장훈고를 2-0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광양제철고 축구부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9 대교농놀이 전국 고등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풍생고를 연장 혈투 끝에 3-2로 제압한 뒤 우승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 풍생고 3-2 꺾고 우승

김영욱 MVP, 김태성 골키퍼상·김인환 감독상 수상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광철고 주장인 김영욱에게 돌아갔으며, 이종호는 이 대회에 4게임만 참가하고도 7골을 터트리는 파괴력으로 득점상을 거머쥐었다. 김태성(2년)은 골키퍼상, 김인환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지난해 광철고 감독으로 부임한 후 백록기 우승, 제64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 이끈 김인환 감독은 "모든 선수가 리그 원년 챔피언이 되자는 마음으로 연장전까지 집

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 이번 대회 우승의 비결이다. 우리 광철고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1996년 창단한 광철고 축구부는 올해에만 전국대회 결승전에 4번 올라가 2번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전국대회에서 14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강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슛을 막아라! 29일 원주 지역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에서 동부 김주성(오른쪽)이 전자랜드 맥스킬의 슛을 수비하고 있다.

29일 원주 지역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인천 전자랜드 경기에서 동부 김주성(오른쪽)이 전자랜드 맥스킬의 슛을 수비하고 있다.

터키 프로배구 문성민

3경기만에 두자릿수 득점

터키 프로배구에서 뛰는 문성민(23·할크방크)이 세 경기 만에 두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문성민은 28일(한국시간) 터키 앙카라 셀림시타란 경기장에서 계속된 터키프로배구 1부리그 베식타스와 경기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8점을 올렸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한자릿수 득점에 머물렀던 문성민은 이날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다. 가로막기 1개를 성공하는 등 공격성공률 62%를 기록했으며 이날 득점에도 시즌 126점을 작성했다.

다만 서브리시브에서 4개의 실책을 저지르고 서브에이스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문성민의 활약에도 소속 팀인 할스방크는 5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3(22-25 25-20 25-21 22-25 13-15)으로 무릎을 꿇었다. 시즌 성적은 5승3패가 됐다. /연합뉴스

'빙속 여제'獨 페히슈타인

혈액도핑으로 은퇴 기로에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던 독일의 '장거리 여제'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37)이 혈액 도핑으로 은퇴 기로에 섰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지난 26일(한국시간)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혈액도핑을 이유로 페히슈타인에게 부과했던 2년간 국제대회 출전금지 징계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혈액 도핑에 따른 2년간 국제대회 출전금지 처분이 확정되면서 페히슈타인 자신의 은퇴 무대가 될뻔했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과 동계올림픽 6회 연속 메달 사냥의 대기록 달성의 꿈을 날리고 말았다.

페히슈타인이 그동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따낸 메달만 9개(금 5, 은 2, 동 2). 특히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5,000m 금메달을 시작으로 1998년 나가노 대회(5,000m 금메달)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3,000m 및 5,000m 금메달), 2006년 토리노 대회(팀추진 금메달)까지 여자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페히슈타인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손꼽혔지만 이번 출전금지 조치로 모든 희망이 날아가 버렸다. /연합뉴스



30일(월) ▲09/10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신세계)(16:50·SBS스포츠)

유럽과 태극전사들 주말 '벤치 신세'

박지성·이청용·설기현·조원희 등 모두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주말 벤치를 지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2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포츠머스의 프레스턴과 크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포츠머스와 원정 경기에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다.

박지성은 지난 26일 터키 베식타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 출전, 13경기 만에 소속팀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며 활약했지만 끝내 퍼거슨 감독

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팀은 헤트트릭을 기록한 웨인 루니와 해기골을 터트린 라이언 깁스의 활약속에 4-1 대승을 거뒀다.

29일 새벽에 열린 풀럼과의 원정경기에서 8경기 연속 출장에 도전했던 불턴 윈다러스의 이청용도 그라운드를 누비지 못했다.

이청용은 지난 23일 블랙번 로버스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4분 교체 출전하는 등 7경기 연속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다.

풀럼FC의 설기현은 5경기만에 얻은 출전

기회를 상대 선수의 동점골로 날리고 말았다. 불턴과의 홈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설기현은 1-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20분께 로이 호지슨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몸을 풀기 시작했다.

설기현은 후반 27분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중앙선 터치라인 부근에서 불이 아웃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불턴의 데미언 더프가 후반 30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에 호지슨 감독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던 설기현을 다시 벤치로 불러들였고, 대신 수비수를 투입했다.

위건 애슬레틱의 조원희도 이날 선덜랜드와 홈 경기에 결장했다. 역시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연합뉴스

"전남 체육인재육성에 힘 됐으면"

'윙크보이' 이용대 장학기금 1천만원 기탁

'윙크보이' 이용대(20·삼성전기)가 전남체육회에 1천만원의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기탁했다.

2009 화순코리아월드컵지자체매드민턴대회 참가를 위해 고향 화순을 찾은 이용대가 서정복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을 통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기탁 의사를 전했다.

이용대는 "어떻게 하면 고향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전남체육회가 지역 체육의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출신 스포츠스타로는 3번째다.

전남 체육회가 조성한 장학기금은 11월말 기준 6억3천850만원에 기탁 확정금액도 3억3천500만에 달하는 등 총 9억7천350만원에 이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업으로 10억원 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용대의 기탁은 '국가대표 미드 필더' 기성용(20·FC 서울)과 골키퍼 김영광(26·울산 현대)에 이어 전남

한국씨티은행과 함께하세요!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최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 화 상 담 **010-7167-3838**

음성채원의 선거절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1666-5425

문의전화: 1588-3533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군민주말(광주·전남 지역)	북구	지산동	287/807	12억 5천	89세대
	남구	지산동	217/148	3억 9천 4백	2세대
	북구	지산동	162/243	2억 5천	1세대
군민시일(광주·전남 지역)	북구	지산동	336/1383	12억 5천	89세대
	남구	지산동	292/946	9억 1천	2세대
	북구	지산동	421/11288	13억 4천 4백	89세대
군민상가(광주·전남 지역)	북구	지산동	81/28	2억 9천 5백	1세대
	남구	지산동	56/35	1억 9천	1세대
	북구	지산동	167/148	1억 1천	1세대